

한국전쟁 시기 북한의 전시생산과 중·소의 지원

조 수 룡*

1. 머리말
2. 전쟁 전 북한의 군비생산 능력과 전시생산으로의 전환
3. 전시생산 기반의 붕괴와 산업 소개(疏開)의 실패
4. 지원에 소극적인 소련과 적극적인 중국
5. 맺음말

1. 머리말

개전에서 전선 교착에 이르는 한국전쟁 초기 동안 전선은 낙동강과 압록강을 오르내리면서 한반도 대부분을 전역(戰域)에 포함시켰다. 그 과정에서 북한지역은 남한지역 이상으로 초토화되어 전쟁 지속이 가능할지 의문시되는 지경에 이르렀다. 1950년 10월 중국 인민지원군의 참전으로 북한은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벗어났지만 문제는 조중연합군을 유지할 군수와 군비였다. 그런 점에서 당시 북한의 독자적인 전쟁 수행은 불가능해 보였다. 그럼에도 전쟁은 어떻게 이후 2년 9개월이나 계속되었을까.

* 경희대학교 박사과정 수료

외부로부터의 군비지원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북한의 한국전쟁 수행 과정에 대한 연구는 필연적으로 국내의 경제기반, 군비지원을 둘러싼 외교관계와 같은 문제들에 대한 관심을 수반한다.

한국전쟁 연구는 이미 양적·질적으로 상당한 성과를 거두어 온 분야이다. 1990년대까지 민간의 한국전쟁 연구는 주로 전쟁의 기원과 영향을 분석하는 데 초점이 두어졌다. 전쟁 과정에 관한 연구는 군인들의 전사(戰史)적 관심에 그쳤을 뿐이다. 2000년을 전후해서부터는 학계에서도 전쟁 과정에 관심을 가지고 민간인 학살, 지역 단위에서의 전쟁 경험, 휴전협정 등 다양한 분야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이처럼 한국전쟁 연구의 관심 영역이 다양해지고 있는 가운데 북한의 전쟁 준비와 수행 과정을 경제적 측면에서 다룬 연구 성과도 제출되고 있다. 먼저 기무라 미쓰히코(木村光彦)와 아베 게이지(安部桂司)는 일제가 대륙침략을 위해 북한지역에 육성한 산업기반과 기술 인력이 해방 후 김일성의 전쟁 준비에 활용되었다는 가설을 제시하였다.¹⁾ 이들의 견해는 북한의 전쟁 준비를 일제 전시체제와 관련지어 고찰했다는 점에서 일제 시기와 단절적으로 진행되어 오던 북한사 연구에 새로운 시각을 제공했다. 하지만 이 연구는 해방 후 북한 공업의 재건 과정을 상당히 실증적으로 다루었음에도 불구하고 재건된 북한의 공업이 전쟁 준비에 활용되었다는 직접적인 근거를 제시하지는 못하였다. 전쟁 준비에 활용되었을 것이라며 제시한 북한의 생산품은 65호공장의 생산을 제외하면 대부분 심중에 그칠 뿐이다. 전쟁에서 북한이 사용한 무기가 대부분 소련제였다는 것이 이미 알려진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북한 자체의 생산을 강조하는 이들의 가설은 다소 무리한 면이 있다.

위 연구를 제외하면 북한의 전쟁 준비는 주로 소련의 무기 제공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시각이 주를 이룬다고 할 수 있다.²⁾ 다만 논자에 따라

1) 기무라 미쓰히코·아베 게이지 저, 차문석·박정진 역, 『전쟁이 만든 나라, 북한의 군사공업화』, 미지북스, 2009.

2) Sergei Goncharov·John Lewis·Litai Xue, *Uncertain Partners: Stalin, Mao, and the Korean War*, Stanford University Press, 1995; 신범식, 『소련의

인민군의 무장은 소련이 제공한 무기로 갖추어졌지만 이는 무상원조가 아닌 차관이었다는 점, 전비 마련 및 차관의 상환을 위해 인민을 대상으로 한 경제적 동원이 이루어졌다는 점 등을 각각 강조하고 있다. 이들 연구의 공통점으로는 북한의 자체 생산에 대해서는 거의 관심을 가지지 않은 점, 대체로 전쟁 과정보다는 전쟁 준비에 초점을 둔 점을 들 수 있다. 이 때문에 필연적으로 소련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의 자체 생산이 전쟁 준비에 어느 정도로 기여했는지는 아직 적절한 평가가 내려진 적이 없으며, 또 전쟁 과정에서의 군수 생산 및 조달과 전비 지출 문제도 그다지 주목받은 적이 없다.

몇몇 연구에서 위 문제들 일부가 다루어진 적이 있지만³⁾ 전쟁 과정에서 북한이 어떻게 필요한 물자와 비용을 충당했는지는 아직 본격적으로 검토되지 않았다. 한국전쟁은 미·소 냉전의 한 결정점이 되었고, 미국은 직접 참전하기까지 한 대규모 전쟁이었다. 그러므로 한국전쟁은 미국에게 ‘제한전쟁(limited war)’이었을 수 있지만, 남한이나 북한과 같은 신생국가에게는 ‘초총력전(super total war)’에 가까웠다고 볼 수 있다.⁴⁾ 따라서 한국전쟁의 전개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경제력을 훌쩍 넘어서는 막대한 군비 수요가 어떻게 충당되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북한 군사지원], 『한국전쟁사의 새로운 연구 1』,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1; 정병준, 『한국전쟁: 38선 충돌과 전쟁의 형성』, 돌베개, 2006; 기광서, 「소련의 대북한 군사원조와 중·소 군대의 참전 문제: 한국전 발발 전후를 중심으로」, 『역사문화연구』 25집, 한국외국어대학교 역사문화연구소, 2006; 전현수, 「한국전쟁과 소련의 역할 - 1949년 3월 조소양국 정부의 협상을 중심으로」, 『大邱史學』 第100輯, 대구사학회, 2007; 김광수, 「북한 정권 성립 이후 ‘통일’ 전략 논의와 전쟁 준비: 1948년 9월부터 1950년 1월까지를 중심으로」, 『軍史』 제79호,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2011.

- 3) 차문석이 전시 생산과 공장 소개 문제를 다룬 적이 있지만, 자료를 소개하는 수준에 그쳤다. 박영실은 전쟁 중 북한에 대한 중국과 소련의 지원에 대해 ‘세계평화옹호운동’과 ‘항미원조운동’을 중심으로 서술하였다. 차문석, 「한국전쟁 시기 북한의 전시 생산체제: ‘공장 소개’와 ‘전시 생산정책’을 중심으로」, 『統一問題研究』 15권 1호, 평화문제연구소, 2003; 박영실, 「중국인민지원군’과 북·중 관계」,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0.
- 4) 온창일, 「초총력전 그리고 제한전」, 『한국정치외교사논총』 5권 1호, 한국정치외교사학회, 1989, 200쪽.

있다.

위와 같은 문제의식 아래 본 연구는 북한의 전쟁 준비와 수행 과정에서 전시 생산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중국과 소련은 경제적으로 북한에 어떤 지원을 제공하였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에서는 먼저 북한의 자체 생산이 전쟁 수행에 어느 정도로 기여했는지를 확인할 것이다. 다음으로는 전쟁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중국과 소련이 경제적인 측면에서 어떤 역할을, 어떤 비중으로 수행했는지 검토할 것이다. 이를 통해 북-중-소 삼각관계가 전쟁 과정에서 겪는 관계 변화의 실마리 또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구소련 자료를 주로 활용하였다. 그 중에서도 기무라 미쓰히코가 수집·번역한 러시아연방대외정책문서보관소(ABИPФ) 소장 자료⁵⁾와 국사편찬위원회, 박종효, 캐스린 웨더스비, 바자노바 부부가 각각 펴낸 대외정책문서보관소, 러시아연방국방성중앙문서보관소(LIA MOPФ) 및 러시아연방대통령문서보관소(AИPФ) 소장 자료⁶⁾가 본 논문에 이용되었다. 이와 함께 북한에서 출판된 각종 공식간행물과 미군 노획 문서, 중국 및 남북한 출신 인사들의 회고록, 당시 중국공산당 연변지방 위원회 기관지였던 『東北朝鮮人民報』 등을 보조 자료로 이용하였다.

5) 기무라 미쓰히코는 발굴한 북한 경제관련 구소련자료를 선별하여 『靑山國際政經論集』에 번역·게재하고 있다. 본 논문에 활용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木村光彦, 「1945~50年の北朝鮮産業資料(3)」, 『靑山國際政經論集』 52号, 靑山学院大学國際政治經濟学会, 2001; 木村光彦, 「1950~51年の北朝鮮經濟資料」, 『靑山國際政經論集』 57号, 2002; 木村光彦, 「1950~51年の北朝鮮經濟資料(続)」, 『靑山國際政經論集』 58号, 2002; 木村光彦, 「朝鮮戦争中の北朝鮮にかんする資料」, 『靑山國際政經論集』 72号, 2007.

6) Kathryn Weathersby, "New Russian Documents on the Korean War", *Cold War International History Project Bulletin*, Issue No.6~7, Woodrow Wilson International Center, 1995; 예프게니 바자노프·나탈리아 바자노바 저, 김광린 역, 『소련의 자료로 본 한국전쟁의 전말』, 열림, 1998; 국사편찬위원회 편, 『한국전쟁, 문서와 자료, 1950~53년』, 국사편찬위원회, 2006; 박종효 편역, 『러시아 연방 외무성 대한 정책 자료 I』, 선인, 2010.

2. 전쟁 전 북한의 군비생산 능력과 전시생산으로의 전환

개전 직전 북한에는 약간의 군수산업 기반이 갖추어져 있었다. 그 대표적인 생산시설로는 무기와 탄약을 생산한 65호공장을 들 수 있다. 이 공장은 일제시기 평양시 평천리에 건설된 포병공장이었는데, 1947년 9월 김일성의 지시에 의해 ‘평양기계제작소’라는 이름으로 조업을 재개하였다. 미군의 정보에 따르면 1948년 11월 현재 공장에서는 소련인 고문관 3명과 인민군 장교 1명의 통솔 하에서 1,500명의 노동자가 일하고 있었다.⁷⁾ 조업을 재개할 때부터 이미 상당한 규모를 갖추었음을 알 수 있다. 당시 북한의 유일한 병기장이었던 평양기계제작소는 산업상 김책의 주도로 기관단총의 자체 생산에 착수하여, 1948년 12월 12일에는 국가시험 자격행사를 성대히 열었다. 그리고 1949년 2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설비를 확장하고 소총과 박격포, 탄약류를 양산하기 시작하였다.⁸⁾ 공장의 확장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던 1949년 6월 18일에는 명칭을 3월 1일자로 소급하여 ‘산업성제65호공장’으로 변경하였다. 병기장의 보안을 위한 조치였을 것이다.⁹⁾

설비 확장과 무기의 양산은 소련의 기술 및 설비 원조에 의해 이루어졌다. 소련은 1948년 6월 이후 북한에 각종 무기의 설계도와 기술 인력을

7) Headquarters, United States Armed Forces in Korea, Office of the Assistance Chief of Staff, G-2, "Intelligence Summary Northern Korea" Issue No.167(19 Nov. 1948~26 Nov. 1948), p.28(한림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편, 『駐韓美軍北韓情報要約 4』, 한림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1989).

8) 사회과학원력사연구소, 『조선전사』 24,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1, 276~277쪽; 김일성, 「군수공업을 발전시키며 귀금속 및 희유금속 광물광산을 증대시킬 때 대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소회의에서 한 결론」(1949.8.23), 『김일성전집』 10권, 조선로동당출판사, 1994, 48~50쪽; 김일성, 「우리는 자체의 힘으로 무기를 만들어 무장하여야 한다: 65호공장 대표들과 한 담화」(1949.10.31), 『김일성전집』 10권, 294쪽; 고청송, 『김정일의 비밀살상무기공장』, 두술, 2001, 14~17쪽.

9) 김광수, 「북한정권 성립 이후 ‘통일’ 전략 논의와 전쟁 준비」, 『軍史』 79호, 27~28쪽.

제공하였다. 또 1948년 8~10월 간 1,850만 루블에 해당하는 설비 및 기재를 지원하였고, 1949~1950년 사이에는 3,200만 루블을 추가로 책정하였다.¹⁰⁾

65호공장에서 무기의 본격적인 양산이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은 1949년 10월 이후부터인 것으로 보인다. 1949년 6월 당시 북한 주재 소련 대사였던 슈티코프는 북한에서 무기 및 탄약 생산이 사실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파악하였다. 무기생산이 지체된 주된 이유는 소련으로부터 전문가의 파견이 늦어졌기 때문이다.¹¹⁾ 양산이 시작된 이후인 1950년 상반기 65호공장의 총생산액은 1억 5,900만 원(99만 루블)¹²⁾에 이르렀다. 같은 시기 기계공업 부문의 총생산액이 6억 7,700만 원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북한의 공업생산에서 65호공장이 차지한 비중은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었다.¹³⁾ 다만 이해 6월에 전쟁이 개시되었기 때문에 전쟁준비에 사용된 65호공장의 무기와 탄약은 이 1950년 상반기 생산 분이 거의 전부였을 것이다. 게다가 중화기는 전혀 생산할 수 없었던 65호공장이 한창

10) 기광서, 「소련의 대북한 군사원조와 중·소 군대의 참전 문제」, 『역사문화연구』 25집, 84쪽.

11) 예프게니 바자노프·나탈리아 바자노바, 『소련의 자료로 본 한국전쟁의 전말』, 20쪽; 기광서, 「소련의 대북한 군사원조와 중·소 군대의 참전 문제」, 『역사문화연구』 25집, 84쪽.

12) 본 논문에서 각국 통화에 따른 금액의 환산은 아래의 표에 제시된 환율을 따른다. 몇몇 자료를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위안 : 루블은 적어도 1951년부터 1953년까지, 위안 : 원은 1951년 4월부터 1952년까지 아래와 같은 고정환율이 적용되었다. 전쟁기간 중에 이러한 환율이 재조정되었을 가능성은 많지 않다. 원 : 루블 환율은 신뢰할 만한 자료를 확인하지 못해 위안 : 루블, 위안 : 원 환율을 근거로 산출하였다.

한국전쟁 시기 북한 원(圓)·중국 위안(元)·소련 루블(рубль)의 환율

구 분	원 : 루블	위안 : 루블	위안 : 원
환 율	160 : 1	6,800 : 1	42.1 : 1

자료: 펠리센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중화인민공화국의 통화·금융관계에 대하여」(木村光彦, 「1950~51年の北朝鮮經濟資料」, 『靑山國際政經論集』 57號, 241頁); 마오쩌둥이 필리포프(스탈린)에게 보낸 전문, 1952년 2월 8일(Kathryn Weathersby, "New Russian Documents on the Korean War", *CWIHP Bulletin*, No.6 ~7, pp.75~76).

13) 펠리센코가 비신스키에게 보낸 보고서, 1950년 8월 17일(木村光彦, 「1945~50年の北朝鮮産業資料(3)」, 『靑山國際政經論集』 52號, 155頁).

병력 증강에 열을 올리고 있던 인민군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는 것은 당연했다.

따라서 북한은 필요한 군수품의 대부분을 소련으로부터 얻을 수밖에 없었다. 1949년 3월 「소련방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간의 물품거래 및 대금결제에 관한 의정서」가 비밀리에 체결되었다. 알려진 바와 같이 이는 실질적인 조소군사원조협정이었다. 이 의정서에서 소련은 북한에 대해 3년간 총 2억 1,200만 루블(339억 원)에 상당하는 군수품을 차관으로 제공할 것을 약속했다. 1952년 7월부터 3년 내에 연 2%의 이자를 포함해 상환하는 조건이었다. 북한은 이 차관을 곡물, 귀금속, 희귀광물과 같은 상품으로 변제하기로 하였다.¹⁴⁾

소련이 제공한 군사차관의 규모를 통해 65호공장의 생산이 북한의 전쟁준비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가늠해 볼 수 있다. 소련은 북한에 대해 1949년 6월부터 1952년 6월까지 3년간 총 2억 1,200만 루블, 매년 약 7,070만 루블의 군사차관을 제공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런데 1950년 2월 김일성은 스탈린에게 1951년도에 제공받기로 한 7,070만 루블의 차관을 1950년에 앞당겨 제공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개전에 관한 스탈린과 김일성의 교감이 사실상 이루어졌기 때문이다.¹⁵⁾ 이에 따라 소련은 1950년 6월 이전까지 약 1억 4,000만 루블 이상의 금액에 상당하는 군수품을 북한에 제공하였다. 한편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65호공장의 생산이 그 대부분을 차지했다고 가정할 때, 북한에서의 무기 및 탄약 생산은 약 100만 루블을 약간 상회하였을 것이다. 이처럼 소련이 제공한 군사차관과 65호공장의 생산액이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65호공장이 고가의 장비와 중화기를 생산하지 못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럼에도 금액으로 단순 평가한다면 65호공장의 생산은 전쟁준비에 거의 아무런 기여도 하지

14) 정병준, 『한국전쟁』, 296쪽; 기무라 미쓰히코·아베 게이치, 『전쟁이 만든 나라, 북한의 군사 공업화』, 291~302쪽; 전현수, 「한국전쟁과 소련의 역할」, 『大邱史學』 100輯, 26쪽.

15) 슈티코프가 비신스키에게 보낸 전문, 1950년 2월 7일(『한국전쟁, 문서와 자료』, 56쪽; Kathryn Weathersby, “New Russian Documents on the Korean War”, *CWIHP Bulletin*, No.6~7, p.36); 정병준, 『한국전쟁』, 483~484쪽.

못했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북한은 소련으로부터의 차관에 의존해 전쟁을 준비했고, 또 이를 상환하기 위한 적지 않은 양의 상품을 준비해야 했기 때문에 군수물자를 비축할 여유가 없었다. 개전 직전 인민군은 식량과 유류, 탄약과 같은 필수적인 군수물자를 약 60일간의 작전이 가능한 수준으로 보유하고 있었다고 한다.¹⁶⁾ 당시 인민군 총참모부가 소련 군사고문들의 도움으로 완성한 작전계획에는 전체 작전기간이 1개월로 예정되어 있었다.¹⁷⁾ 미국이 본토에서 병력을 증원하는 데 약 한 달에서 한 달 반이 소요되므로 그 안에 한반도를 장악하여 미국의 개입을 봉쇄하겠다는 의도였다.¹⁸⁾ 따라서 약 두 달분의 군수물자는 미국이 참전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남한과의 속전속결을 가정한다면 충분한 준비라고 볼 수도 있었다.

그러나 소모성 물자가 비교적 충분히 준비되었던 것에 비해 인민군의 무기와 장비 재고는 상당히 다른 양상을 보여준다. 다음의 <표 1>은 개전 직전 인민군이 보유한 화포의 현황이다.

<표 1> 1950년 6월 현재 조선인민군 보유 화포(단위: 문)

무기명	군 병기고	야전군	해군	계
박격포	-	857	18	875
대전차포	-	521	31	52
야포	10	495	60	565
고사포	-	36	36	72

자료: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편, 『소련 군사고문단장 라주바예프의 6·25전쟁 보고서 1』,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1, 278쪽.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인민군은 화포 재고를 거의 남겨두지 않았다. 개인 화기 또한 마찬가지였다. 낙동강에서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지던

16) 김광수, 「북한정권 성립 이후 ‘통일’ 전략 논의와 전쟁 준비」, 『軍史』 79호, 33~34쪽.

17) 정병준, 『한국전쟁』, 525쪽.

18) 허종호, 『조선인민의 정의의 조국해방전쟁사 1』, 사회과학출판사, 1983, 110쪽.

1950년 8월, 인민군은 남한지역에서 의용군을 징집하였지만 소총의 재고가 없었기 때문에 무기도 지급하지 않고 전선에 투입하는 경우가 많았다.¹⁹⁾ 이는 작전계획에 차질이 생겨 병력을 보충하거나 재편해야 하는 상황을 북한 지도부가 처음부터 염두에 두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그것은 전쟁을 속전속결로 승리할 수 있다는 김일성의 자신감 내지는 무모함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계획에 차질이 생겼을 때를 대비한 무기와 물자를 준비하는 것이 애초에 불가능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당시 북한의 경제력 으로서는 소련으로부터 차관을 최대한 끌어들이 약 한 달 동안의 전쟁을 준비하는 것이 최선이었던 것이다.

북한 지도부가 장기전을 고려하지 않고 있었다는 사실은 개전 직후에 취해진 일련의 조치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전쟁을 개시한 북한은 6월 26일 군사위원회회를 조직하고 27일에는 전시상태를 선포하여 전시체제로 전환했다. 또 지방에는 군사위원회회의 지도를 받는 지방군정부를 조직하였다. 치안 및 군사안보와 관련한 지방 주권기관의 모든 업무는 지방군정부로 이양되었다.²⁰⁾ 중앙에서 지방에 이르기까지 일체의 정치·행정기능을 군사위원회와 지방군정부가 장악하게 한 조치였다.

그러나 전시체제로의 전환 조치는 북한 전역을 대상으로 하지 않았다. 27일 발표된 「전시상태에 관하여」의 적용대상은 전선 인근의 강원도와 황해도에 한정되었다.²¹⁾ 전선 후방지역에 대해서는 평시와 같이 인민위원회가 주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후방지역까지 동원되는 총력전과 장기전을 상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한 조치였다.

동원령이 전시상태 선포와 함께 이루어지지 않고 7월 1일에야 선포된 것도 위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6월 29일과 30일 사이에

19) 徐鏞瑄, 『韓國戰爭時 占領政策 研究』, 國防軍史研究所 編, 『韓國戰爭 研究: 占領政策·勞務運用·動員』, 國防軍事研究所, 1995, 43쪽.

20)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군사위원회 조직에 관하여(1950. 6. 26)」, 『조선중앙년감: 1952~52년판』, 조선중앙통신사, 1952, 82쪽;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전시상태선포에 관하여(1950.6.27)」, 『조선중앙년감: 1952~52년판』, 82~83쪽.

21) 『조선중앙년감: 1951~52년판』, 446쪽.

미국의 참전이 가시화되었기 때문이다. 29일에는 미 공군의 북한지역 폭격이 시작되고, 30일에는 지상군의 파병이 결정되었다. 김일성은 미 공군의 폭격이 시작되자마자 전쟁이 난관이 처했음을 인지했다. 더 이상 속전속결을 낙관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장기전이 될지도 모를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인적·물적 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가장 먼저 취해진 조치가 7월 1일의 동원령 선포였다. 이에 따라 북한지역에서 1914년부터 1932년 사이에 출생한 인민들은 전부 동원대상이 되었다.²²⁾ 징병제로의 전환이었다. 그리고 같은 날 군사위원회는 남한 점령지역에서의 ‘인민의용군’ 조직을 결정하였다.²³⁾

다음 조치로 북한 지도부는 1950년 3/4분기 인민경제계획을 채택하였다. 이것은 1949~50년 2개년 계획을 수정, 분기별 계획으로 전환한 것이었다. 새로 채택된 계획에는 병기공장의 생산규모 확대, 국영공업기업소의 군수산업 전환, 군수공업에 대한 원료·자재의 우선적 보장과 같은 내용이 반영되었다.²⁴⁾ 이에 따라 산업성은 7월 7일부터 군용 무기와 장비 생산으로의 전환을 시작하여, 7월 10일 이후에는 34개 기업이 공병장비의 생산을 시작하였다.²⁵⁾ 한 달 간의 전쟁을 상정한 기존 계획대로라면 위와 같은 조치는 필요 없는 것이었다. 반대로 장기전의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었다면 7월어야 전시 생산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질 리가 없었다. 따라서 1950년 3/4분기 인민경제계획 채택과 전시 생산으로의 전환은 전쟁 전에 미리 계획된 것이 아니라 미국의 참전으로 정세가 급변하자 다급하게 준비된 대책이었다.

22) 슈티코프가 핀시(스탈린)에게 보낸 전문, 1950년 7월 1일(『한국전쟁, 문서와 자료』, 69쪽);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전지역에 동원을 선포할 데에 관하여(1950.7.1.)』, 『조선중앙년감: 1951~52년판』, 82~83쪽.

23) 김일성, 『인민의용군을 조직할 데 대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군사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한 결론(1950.7.1.)』, 『김일성 전집』 12권, 76쪽.

24) 허중호, 『조선인민의 정의의 조국해방전쟁사 1』, 130쪽.

25) 정일룡, 『전쟁시기 1950년의 산업과업 총결과 1951년에 있어서 산업의 재건과 발전에 관한 긴급한 과제(일자불명)』(木村光彦, 『1950~51年の北朝鮮經濟資料(続)』, 『靑山國際政經論集』 58号, 211頁).

전시생산으로의 전환을 시작했지만 미군과의 대결이 가시화된 상황에서 추가 군수품의 확보는 시급한 문제였다. 필요한 무기와 장비를 즉시 확보하려면 역시 소련에 요청하는 수밖에 없었다. 조급해진 김일성은 무기 제공 요청을 남발했다. 김일성은 7월 1일 스탈린에게서 탄약과 군수품의 추가 공급 허가를 받아낸 데 이어²⁶⁾, 3일에는 미군 공수부대가 배후에 상륙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면서 이에 대비하기 위한 무기와 장비의 공급을 요청했다.²⁷⁾ 이것은 2개 보병사단과 육전대 12개 대대, 그리고 내무경비대의 추가 편성을 위한 것으로, 소총 5만 정을 포함한 상당히 많은 양이었다. 또 같은 날 김일성은 예비연대와 2개 전차여단의 편성에 착수했다고 하면서 이에 필요한 무기와 전차도 요구했다. 스탈린은 위 요청 대부분을 수락하였다. 그러면서 그는 예기치 않은 미 공군의 공습에 북한지도부가 공황에 빠지지 않는지 걱정했다.²⁸⁾

전쟁개시 직후 김일성과 스탈린이 인민군의 대규모 증편을 꾀한 사실은 미군 참전이라는 변수가 이들의 전쟁 계획에 반영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 예상치 못한 미군의 참전이 이루어짐에 따라 대규모의 추가 지원 없이는 전황을 낙관할 수 없게 되었던 것이다. 그것은 애초에 준비한 전력만으로 전쟁을 종결짓겠다는 계획에서 가능한 국내외의 모든 자원을 총동원하여 장기전에 대비하는 총력전 체제로의 전환이었다. 이제 군비 수요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 자명했지만, 북한은 이에 대한 대비를 전혀 하지 못한 채 전시생산으로의 전환을 다급하게 시작하고 있었다.

26) 슈티코프가 핀시에게 보낸 전문, 1950년 7월 1일(『한국전쟁, 문서와 자료』, 69쪽).

27) 슈티코프가 핀시에게 보낸 전문, 1950년 7월 4일(『한국전쟁, 문서와 자료』, 70쪽).

28) 핀시가 슈티코프에게 보낸 전문, 1950년 7월 1일(『한국전쟁, 문서와 자료』, 67~68쪽);
핀시가 슈티코프에게 보낸 전문, 1950년 7월 6일(『한국전쟁, 문서와 자료』, 73쪽).

3. 전시생산 기반의 붕괴와 산업 소개의 실패

미군의 참전은 조기 종전의 전망만 어둡게 한 것이 아니었다. 한국전쟁에 투입된 미 공군은 수송망에 대한 차단작전과 산업시설에 대한 전략 폭격을 통해 북한의 전쟁수행 능력과 의지를 파괴하고자 했다. 미 공군은 6월 29일 평양 폭격을 시작으로 10월까지 원산·흥남·함흥·청진·라진·성진과 같은 주요 산업지대에 대한 공중폭격을 감행했다.²⁹⁾ 이들 대도시에 대한 미 공군의 대규모 폭격은 특히 7~8월에 집중되었다. 미 공군은 7월 13일 정유공장이 위치한 원산을 폭격한 데 이어, 7월 30일부터 3일간 흥남 공업지구, 8월 7일 평양의 65호공장, 8월 27일과 28일에는 검이포와 성진의 제철소를 폭격하였다. 해당지역을 초토화하는 방식의 대규모 폭격이 계속된 결과, 9월 15일 극동공군사령관 스트레이트메이어는 전쟁 수행에 필요한 북한의 군수산업 목표는 실질적으로 무력화되었다고 선언했다.³⁰⁾

그렇다면 스트레이트메이어의 주장처럼 북한의 산업시설은 완전히 무력화되었을까? 이에 관한 종래의 연구는 미군에 의해 작성된 추정치와 북한의 공식 발표자료를 토대로 북한 산업시설의 피해를 검토하였었다.³¹⁾ 그러나 이를 통해 피해의 전모를 파악하기는 쉽지 않다. 미군 측 자료는 폭격 후 사진 분석에 의한 추정치이며 북한 측의 자료는 개별 사례들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지만 전체 통계는 생략하고 있기 때문이다.³²⁾

29) 김태우, 『한국전쟁기 미 공군의 공중폭격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08, 70~71쪽.

30) 미 극동공군이 공격목표로 인식한 평양병기창은 39°00'N-125°44'E 지점에 위치한 것으로 처음 65호공장이 위치했던 평양시 평천리와 일치한다. 김태우, 『한국전쟁기 미 공군의 공중폭격에 관한 연구』, 96~115쪽; 고청송, 『김정일의 비밀살상무기공장』, 15쪽.

31) 이신철, 『전쟁피해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의 변화』, 『역사문제연구』 6, 역사문제연구소, 2001; 김태우, 『한국전쟁기 미 공군의 공중폭격에 관한 연구』; 김태우, 『한국전쟁 초기 미 공군의 북한지역 공중폭격』, 『한국민족운동사연구』 64, 한국민족운동사학회, 2010.

32) 미군 측의 자료는 미 공군역사연구소(AFHRA)에 소장된 『극동공군 폭격기사령부 작전명령서(FEAF Bomber Command Operations Order)』와 『극동공군 폭격기사령부요람

이와 관련하여 소련 측이 작성한 「미군의 공습 결과 발생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산업과 운송의 손해」라는 제목의 보고서가 주목된다.³³⁾ 이 자료는 북한 주재 소련대사관 참사 펠리센코가 본국 외무성에 보고한 것으로, 미 공군의 폭격이 북한의 산업과 운송에 준 피해와 복구 상황을 상세히 기록하고 있다. 1950년 9월에 작성된 이 보고에 따르면 산업성 산하의 국영기업 중 파괴된 것은 76개 기업으로, 황해제철소·남포제련소·홍남화학비료공장·홍남화학공장·65호공장과 같은 주요 군수공장이 큰 피해를 입었다. 교통성 산하의 기업 중에서는 평양기관차수리공장 등 4개소가 파괴되었고, 상업성 산하의 기업과 시설물은 14개 기업소·58개 상점·21개 창고가 완파, 9개 기업소·43개 상점·6개 창고가 부분적으로 파괴되었다. 특히 군수산업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기계공업은 평양·홍남·남포를 비롯한 총 11개 공장이 완파 또는 대파되어, 총 16억 2천만 원에 상당하는 손실을 입었다. 슈티코프는 보고서에서 7~8월 동안 북한의 산업은 약 80%가 파괴되었고, 그 결과 8월의 생산수준은 전쟁 전의 25% 수준까지 떨어진 것으로 평가했다.³⁴⁾

흥미로운 사실은 대부분의 산업시설이 폭격 피해를 면치 못했지만, 65호 공장은 피해를 거의 받지 않고 중요한 설비와 원재료 및 인력을 이전하는 데 성공했다는 것이다. 설 새 없는 폭격 속에서 작업이 이루어졌다는 산업상 정일룡의 언급으로 미루어보아 공장의 이전은 평양 폭격이 있었던 6월 29일경이었다고 생각된다. 공장이 이전된 장소는 원위치에서 약 80km 떨어진 평북 성천군 군자리의 남·주석광산 갭도였다. 갭도로

(FEAF Bomber Command Digest)을 들 수 있다. 김태우의 연구에서 이 자료가 적극적으로 활용된 바 있다. 김태우, 『한국전쟁기 미 공군의 공습폭격에 관한 연구』.

북한 측의 자료는 다음을 들 수 있다. National Archives, Record Group 242, Shipping Advice 2011, Box 9, Item 25.5, 조국전선조사위원회 보도, 『미제와 리승만 도당들의 죄악에 대하여』, 조선로동당출판사, 1951; 고상진, 『조선전쟁시기 감행한 미제의 만행』, 사회과학출판사, 1989.

33) 펠리센코, 「미군의 공습 결과 발생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산업과 운수의 손해(1950년 9월)」, (木村光彦, 『朝鮮戦争中の北朝鮮にかんする資料』, 『青山国際政経論集』, 72号).

34) 펠리센코, 「미군의 공습 결과 발생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산업과 운수의 손해(1950년 9월)」, (木村光彦, 『朝鮮戦争中の北朝鮮にかんする資料』, 『青山国際政経論集』, 72号, 128頁)

이전한 것은 시설의 보안을 염두에 두었기 때문일 것이다. 당시 그곳은 지하임에도 불구하고 합숙소·변전소·사무소·노동자문화회관 등 현대적인 시설을 갖추고 있었다고 한다. 이는 65호공장의 이전이 전쟁발발 전에 미리 예정된 것이었음을 의미한다. 이와 더불어 중요한 사실은 이 공장이 확장 이전되었다는 점이다. 정일룡은 공장의 이전 후 생산량이 이전보다 약 1.5배 증가했다고 평가했다. 이후 공장에서는 대전차 수류탄·기관총·박격포 등을 대량으로 생산했다. 65호공장은 폭격에 대비해 소개된 것이 아니라 확장 이전하여, 당시 북한에서 유일한 대규모 종합 병기공장으로 탈바꿈한 것이다.³⁵⁾

그런데 정일룡은 1950년도 산업생산을 총결하면서 6~9월에 이르는 시기까지 65호공장 외에 다른 공장의 이전·소개 사례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이는 65호공장을 제외하면 미 공군의 폭격에 대응한 소개 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음을 시사한다. 정일룡은 이 기간 동안 군수산업으로의 전환이 완만하고 불확실했으며, 공장의 이전작업이 정확히 진행되지 않았고, 극심한 폭격의 결과 군수품의 생산이 중단된 곳이 많았다고 평가했다.³⁶⁾

종합해보면 1950년 6월에서 9월까지 이루어진 미 공군의 전략폭격에 의해 북한의 전시생산은 전반적으로 마비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65호공장만이 적시에 이전을 완료하여 오히려 생산을 확대할 수 있었다. 다만 65호공장의 이전은 미 공군의 폭격에 대비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설비 확장을 위해 이미 전쟁 전부터 계획된 것이었다. 역설적으로 이는 북한 지도부가 미 공군의 폭격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지 못했거나, 수립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각 산업시설에서 적시에 집행되지 못했음을

35) 고청송, 『김정일의 비밀살상무기공장』, 17쪽; V. 이바넬코·A. 쎄자킨, 「제65공장」(木村光彦, 「1945~50年の北朝鮮産業資料(3)」, 『靑山國際政經論集』 52号, 162頁); 정일룡, 「전쟁시기 1950년의 산업과업 총결과 1951년에 있어서 산업의 재건과 발전에 관한 긴급한 과제」(木村光彦, 「1950~51年の北朝鮮經濟資料(統)」, 『靑山國際政經論集』 58号, 212頁).

36) 정일룡, 「전쟁시기 1950년의 산업과업 총결과 1951년에 있어서 산업의 재건과 발전에 관한 긴급한 과제」(木村光彦, 「1950~51年の北朝鮮經濟資料(統)」, 『靑山國際政經論集』 58号, 213頁).

의미한다. 이러한 실패는 아마도 개전 직후 평시생산에서 전시생산으로의 전환이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채 조급하게 이루어진 것과 관련이 깊을 것이다.

예기치 못한 폭격 피해로 후방이 혼란에 빠져 있는 동안 낙동강전선의 상황도 갈수록 악화되어가고 있었다. 인천상륙작전이 성공하여 낙동강전선의 부대들이 포위될 위험에 처하게 되자 김일성은 이들을 신속히 서울 인근으로 퇴각시킴과 동시에, 남북한지역에서 신규 사단을 편성하여 유엔군의 진격을 저지하고자 했다.³⁷⁾ 그러나 아직 철수하지 못한 1·2군단과의 통신은 두절된 상태였고, 남한지역에서의 신규 사단 편성은 중단되었다. 북한지역에서 새로 편성된 부대들은 수송 수단의 부족으로 전선을 향해 매우 느리게 이동하고 있었다.³⁸⁾ 조직적인 후퇴가 이루어지지 않음은 물론 지연작전을 위한 예비병력 또한 적시에 준비되지 못한 것이다. 결국 서울 함락 직전인 9월 27일, 38선 방어를 장담할 수 없게 된 김일성은 북한지역의 각 기관·공장·기업소와 전략물자에 대한 소개를 지시할 수밖에 없었다.³⁹⁾

각 기관과 기업소에 언제 소개 지시가 하달되었는지를 알려주는 자료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9월 27일에 김일성의 최초 지시가 나왔지만 즉시 소개 준비에 착수하지는 않았던 것 같다. 평양에서는 10월 8일부터 11일까지 정부기관과 외교단의 소개를 진행하여, 그 대부분은 임시수도인 강계로 이동했다. 김일성과 박헌영을 비롯한 수뇌부는 12일에 빠져나갔다. 슈티코프에 따르면 정부기관의 소개는 비계획적·비조직적으로 매우 성급하게 진행되었다. 사실상 소개 계획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

37) 김일성, 「급변하는 군사정세에 대처하기 위한 몇 가지 과업: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에서 한 연설」(1950.9.17), 『김일성전집』 12권, 309쪽.

38) 슈티코프가 그로미코에게 보낸 전문, 1950년 9월 21일(『한국전쟁, 문서와 자료』, 144~145쪽); 마트베예프(자하로프)가 핀시에게 보낸 전문, 1950년 9월 27일(『한국전쟁, 문서와 자료』, 149쪽); 슈티코프가 핀시에게 보낸 전문, 1950년 9월 30일(『한국전쟁, 문서와 자료』, 157쪽).

39) 김일성, 「일시적인 전략적 후퇴와 당단체들의 과업: 도당위원장협의회에서 한 연설(1950.9.27)」, 『김일성전집』 12권, 328~329쪽.

였다고 한다. 중앙정부기관의 소개임에도 차량이 충분치 않아 일부는 강계까지 400km에 달하는 거리를 도보로 이동하기도 했다.⁴⁰⁾ 특이한 것은 북조선중앙은행만 평양이 함락되는 19일 저녁까지 지폐와 증서의 발행을 계속하고 있었는데, 그 이유는 확인되지 않는다. 철수가 늦었던 관계로 중앙은행은 만포까지 철수하는 과정에서 총 2억 6천 7백여만 원의 막대한 손실을 내었다.⁴¹⁾ 중앙은행을 제외한 정부기관들은 유엔군과 국군이 당도하기 전에 일찌감치 평양을 떠났기 때문에 소개는 비교적 큰 손실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산업성은 10월 9일부터 소개의 조직화를 시작하여 소개의 지도를 위한 12명의 인원을 단천·홍남·청진·해주·검이포·남포·강선·평양 등에 파견하였다. 인력 소개의 최우선 대상은 기사장 및 숙련노동자와 동요할 가능성이 있는 인원이었다. 가장 마지막으로 병기 제조에 종사하는 노동자를 소개시켰다. 인원의 소개선은 다음과 같이 정해졌다.

- ① 황해도, 평안남도, 함흥 → 강계 방면
- ② 단천, 청진, 함경남도 → 혜산 방면
- ③ 함경남도(함경북도의 오기로 추정—인용자)의 청진 북방 → 무산 방면⁴²⁾

병기 제조에 종사하는 노동자를 가장 마지막에 소개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은 그만큼 이들의 충성심이 다른 노동자들에 비해 높았기 때문일 것이다. 실제로 소개 과정에서 가장 모범적이었다고 평가받은 곳이 65호 공장이었다. 65호공장은 국군 6사단에 의해 성천군이 점령되기 전날인 10월 18일까지 병기 생산을 계속하다가 다음날 새벽 3시에야 성천군을

40) 슈티코프가 그로미코에게 보낸 전문, 1950년 10월 13일(『한국전쟁, 문서와 자료』, 179쪽).

41) V. 펠리센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광공업, 교통, 금융의 상황에 대하여」(木村光彦, 「1950~51年の北朝鮮經濟資料」, 『靑山國際政經論集』 57号, 236頁).

42) 정일룡, 「전쟁시기 1950년의 산업과업 총결과 1951년에 있어서 산업의 재건과 발전에 관한 긴급한 과제」(木村光彦, 「1950~51年の北朝鮮經濟資料(統)」, 『靑山國際政經論集』 58号, 215頁).

빠져나갔다.⁴³⁾ 이후 65호공장은 860명의 인력과 중요서류·설계도 및 공장 설비와 함께 자강도 장강군으로 이전하여 생산을 계속했다. 성공적인 소개 작업의 결과 65호공장 노동자들은 김일성으로부터 직접 감사편지까지 받았다고 한다.⁴⁴⁾



〈그림 1〉 1950년 10월 9일 이후 산업성의 소개 계획

이 외에도 흥남화학비료공장, 청진제철소, 청진제강소, 남포제련소, 원산 철도공장, 평양곡산공장, 길주팔프공장, 문평제련소, 운곡·가은·천동·검덕·락연광산 등이 성공적인 소개 사례로 평가받았다. 이들 공장의 생산품은 무기·화약·철강·비철금속·열차(수리)·식료품 등으로 모두 전쟁 수행에 필수불가결한 전략물자들이었다. 성공적으로 소개된 공장들 대다수가

43) 정일룡, 『전쟁시기 1950년의 산업과업 총결과 1951년에 있어서 산업의 재건과 발전에 관한 긴급한 과제』(木村光彦, 『1950~51年の北朝鮮經濟資料(続)』, 『靑山國際政經論集』 58号, 215頁).

44) 고청송, 『김정일의 비밀살상무기공장』, 18쪽. 마지막까지 남아 생산을 계속하던 이들은 20명의 결사대였다. 국군이 코앞에 다다를 때까지 생산을 계속한 이유는 제2전선을 펼 예정인 인민군부대에 공급할 700정의 무기를 생산하라는 긴급지시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한다. 근로단체출판사 편, 『언제나 위대한 수령님과 함께(조국해방전쟁시기편)』, 근로단체출판사, 1977, 17~18쪽; 강석희, 『조선인민의 정의의 조국해방전쟁사 2』, 사회과학출판사, 1983, 90~91쪽.

전략물자를 생산했다는 것은 인민군 최고사령부에서 이들의 소개를 최우선적으로 보장하고자 했음을 보여준다. 산업의 전반적인 파괴 속에서도 전쟁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이 공장들의 보전이 절실했던 것이다.

그런데 전후 북한에서 영웅적 투쟁으로 선전된 소개 사례를 살펴보면, 위 공장들의 경험담만이 반복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950년 10월의 생산시설 소개를 언급하고 있는 4편의 자료를 비교해보자.⁴⁵⁾ 흥남화학 비료공장은 정일룡의 연설과 『영광스런 혁명의 길에서』에 언급되고 있고, 청진제철소와 청진제강소, 원산철도공장, 길주팔프공장은 『영광스런 혁명의 길에서』와 『조선인민의 정의의 조국해방전쟁사』에서 반복 서술되고 있다. 가장 많이 언급된 것은 65호공장과 평양곡산공장의 사례로, 3편의 자료에서 다루어졌다. 특히 『조선인민의 정의의 조국해방전쟁사』는 모철도공장과 모차량공장(현 6월4일공장)의 사례를 각각 언급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원산철도공장이라는 하나의 사례를 둘로 나누어 서술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같은 사례를 마치 별개 사례인 것만양 서술할 정도로 성공적 소개 사례가 제한되어 있는 것이다. 이처럼 여러 자료에서 다른 모범 사례들이 중복되는 것은 그 외 다른 공장들의 소개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음을 반증한다. 정일룡은 10월의 산업 소개 과정에 많은 결점이 있었음을 지적하면서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성의 몇몇 지도적 노동자와 기업의 많은 지도자는 전쟁의 제2계단(일시적 후퇴 시기—인용자)에서 상황의 변화에 경악하여 기초설비, 원재료, 인재, 서류를 보호하지 못했습니다....(중략)...어떤 지도적 노동자는 귀중한 생산설비를 감추지도 이전하지도 않고 공황에 빠져 그것들을 잃어버렸습니다.⁴⁶⁾

45) 정일룡, 「전쟁시기 1950년의 산업과업 총결과 1951년에 있어서 산업의 재건과 발전에 관한 긴급한 과제」(木村光彦, 「1950~51年の北朝鮮經濟資料(統)」, 『靑山國際政經論集』 58号); 근로단체출판사 편, 『영광스런 혁명의 길에서: 조국해방전쟁시기 노동자들의 투쟁』, 근로단체출판사, 1968; 근로단체출판사 편, 『언제나 위대한 수령님과 함께』; 강석희, 『조선인민의 정의의 조국해방전쟁사 2』.

46) 정일룡, 「전쟁시기 1950년의 산업과업 총결과 1951년에 있어서 산업의 재건과 발전에

남포변전소, 검덕광산, 사리원·신천탄광, 평양화학공장, 흥남제련소에서는 소개사업이 제대로 조직되지 못한 결과 설비와 자재를 망실했다. 순천화학공장과 성흥 및 강동광산의 지배인은 기업소를 버리고 혼자 도주했다. 평양고무공장·평양제2양말공장·신의주제지공장의 지배인 또는 회계간부는 공장자금을 횡령하여 도주하기도 했다. 특히 평양제2양말공장의 지배인은 노동자들에게 공장자금을 분배하고 나머지를 자신이 소유했는데, 이는 전쟁이 북한의 패배로 끝날 것이라고 예상하지 않았다면 있을 수 없는 행동이었다.⁴⁷⁾ 몇몇 중요 공장을 제외한 많은 공장·기업소에서는 후퇴 시기에 극심한 혼란과 공황을 겪으면서 소개 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던 것이다.

소개에 성공한 경우도 복귀 후 생산을 재개하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했다. 소개 과정에서는 이동이 여의치 않은 기계와 설비가 많았고, 수송수단은 부족했으며, 후퇴는 화급을 다투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한 상황에서 공장 노동자들은 종종 기계와 설비를 은밀히 매몰하고 후퇴했는데, 돌아온 후 파내보면 다 망가져 쓸 수 없게 된 경우가 발생했던 것이다. 또 권양차(捲揚車)까지 동원해 험준한 개마고원을 넘는 과정에서 기계가 파손되는 경우도 비일비재했다.⁴⁸⁾

요컨대 북한 지도부는 후퇴 과정에서 전략적 중요산업의 소개를 우선시하여 전시생산을 지속하고자 했다. 몇몇 공장들은 성공적으로 소개되었지만 대다수 공장의 간부와 종업원들은 혼란에 빠져 소개 작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못했다. 또한 소개시키거나 매몰한 기계와 설비들은 파손되거나 마모되어 쓸 수 없는 경우가 종종 발생했다. 그 결과 후퇴에서 돌아온 뒤 생산규모는 전전의 10% 수준으로 떨어져, 산업성은 1951년 1/4분기 광공업의 생산규모를 총 5억 원으로 예상하고 있었다.⁴⁹⁾ 후퇴

관한 긴급한 과제」(木村光彦, 『1950~51年の北朝鮮經濟資料(統)』, 『青山國際政經論集』 58号, 219頁).

47) 위의 자료.

48) 근로단체출판사 편, 『영광스런 혁명의 길에서』, 201~202, 253, 286~291쪽.

49) 1950년 1/4분기 생산액은 50억 원이었다. 펠리센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광공업』,

직전인 9월의 생산수준이 전전의 약 25%였음을 감안하면 소개 과정에서 후퇴 전에 비해 60% 가량의 손실이 발생한 것이다.⁵⁰⁾ 그나마 전쟁 전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부문은 1억 원의 생산을 계획한 병기공업뿐이었다. 결국 1950년 10월 산업시설의 소개 성과는 65호공장을 비롯한 몇몇 중요공장에만 국한되었다고 볼 수 있다.

미 공군의 전략폭격으로 인한 피해가 누적되고 산업시설의 소개 작업이 전반적으로 실패한 결과 북한의 생산기반은 철저히 파괴되었다. 총 5억원을 예상한 1951년 1/4분기 광공업의 예상 생산규모는 1950년 북한의 전체 국가예산이 267억 원에 달했던 것과 비교해볼 때 유의미한 수치라고 보기 어렵다. 1951년 초에 이르러 북한의 생산기반은 무시해도 좋을 만한 수준으로 파괴되었던 것이다. 더욱이 소개 과정에서 북한 지도부는 전략물자를 생산하는 산업시설을 우선적으로 보전하고자 했다. 그러므로 인민생활과 관련된 소비재 생산은 거의 전무한 상태라고 보아도 좋았다. 이처럼 국가경제 자체가 파탄에 이른 상황에서는 군수지원뿐만 아니라 인민경제의 유지를 위한 별도의 지원이 필요하게 되었다. 그것은 군수지원을 매개로 북한과 소련 사이에 형성된 의존관계와는 별개의, 새로운 의존관계가 만들어질 것임을 예고하는 것이었다.

4. 지원에 소극적인 소련과 적극적인 중국

북한의 전쟁준비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소련의 군비 원조는 전쟁 중에도 계속 이어졌다. 이전부터 무기와 탄약을 계속 공급하고 있던 소련은 인천상륙작전으로 서울이 위태로워지자 북한지역에서 예비부대로

교통, 금융의 상황에 대하여」(木村光彦, 「1950~51年の北朝鮮經濟資料」, 『青山國際政經論集』 57号, 232~233頁).

50) 펠리센코, 「미군의 공습 결과 발생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산업과 운수의 손해」, 1950년 9월(木村光彦, 「朝鮮戰爭中の北朝鮮にかんする資料」, 『青山國際政經論集』, 72号).

편성된 6개 사단 분의 무기와 3,400대의 차량을 추가로 제공했다.⁵¹⁾ 1951년 6월 전선이 교착되고 방어작전으로 전환하게 되면서 소련은 또 다시 대량의 무기를 북한에 지원했다. 소총 2만 5천 정, 각종 기관총 7,025정, 대전차총 500정, 박격포 825문이 여기에 포함되었다.⁵²⁾ 소련이 북한에 제공한 군수품의 액수는 1950년 한 해에만 8억 7,000만 루블(1,392억 원)에 달했다.⁵³⁾ 65호공장의 1950년 상반기 생산액이 1억 5,900만 원이었던 것을 상기하면 막대한 금액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김일성은 1950년 11월에 열린 조중 군 지휘관회의에서 인민군은 소련의 도움으로 필요한 모든 것이 보장되었고 소련은 거절한 적이 없다고 언급했다. 이 자리에서 슈티코프 또한 소련이 인민군에게 탄약과 무기를 전혀 부족함 없이 지원했음을 강조하면서 다만 인민군의 조직력이 미비하여 많은 무기를 망실했다고 지적하였다.⁵⁴⁾ 그의 지적은 원조 공여국의 오만함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었지만, 당시의 김일성으로서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소련의 중국에 대한 군비 원조 규모는 이보다도 방대했다. 소련은 1950년 총 2억 3,750만 루블의 군수품을 차관과 무역의 형태로 공급했다. 1951년 2월에는 12억 3,500만 루블 규모의 중소군사차관협정을 체결하고, 9월에는 6억 루블의 추가 차관의 제공을 약속했다.⁵⁵⁾ 휴전회담이

51) 마트베예프가 필리포프에게 보낸 전문, 1950년 9월 27일(『한국전쟁, 문서와 자료』, 148~149쪽; 박종효, 『러시아 외무성 대한 정책 자료 I』, 414~415쪽); 창푸(불가닌)이 마트베예프에게 보낸 전문, 1950년 9월 30일(『한국전쟁, 문서와 자료』, 155쪽; 에페게니 바자노프·나탈리아 바자노바, 『소련의 자료로 본 한국전쟁의 전말』, 97쪽).

52) 필리포프가 라주바예프에게 보낸 전문, 1951년 5월 29일(『한국전쟁, 문서와 자료』, 253쪽; Kathryn Weathersby, “New Russian Documents on the Korean War”, *CWIHP Bulletin*, No.6~7, p.59).

53) Sergei Goncharov · John Lewis · Litai Xue, *Uncertain Partners*, p.147.

54) 슈티코프가 그로미코에게 보낸 전문, 1950년 11월 17일(『한국전쟁, 문서와 자료』, 202·207쪽).

55) 바실리예프스키와 멘슈코프가 스탈린에게 보낸 보고서, 1951년 1월 19일(『한국전쟁, 문서와 자료』, 242쪽); 필리포프가 마오쩌둥에게 보낸 전문, 1951년 9월 26일(『한국전쟁, 문서와 자료』, 591쪽); 楊奎松, 『중국군의 정전협상전략』, 『한국전쟁사의 새로운 연구』 1,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1, 533쪽.

시작되기 전인 6월까지 스탈린은 마오쩌둥의 군수물자 제공 요구를 거의 만족시켰다. 스탈린이 이와 같이 적극적으로 중국을 지원하지 않을 수 없었던 이유는 중국도 북한과 마찬가지로 전쟁을 감당할 경제력이 충분치 못했기 때문이었다. 예를 들어 1951년 1/4분기에 필요한 탄약은 14,100톤이었는데, 중국이 생산할 수 있는 양은 겨우 1,500톤에 불과했다. 당시 중국에 탄약을 제공해줄 수 있는 나라는 소련뿐이었다.⁵⁶⁾

그러나 6월 말이 되자 스탈린은 60개 사단 분의 무기를 제공해달라는 마오쩌둥의 요구에 그해 안으로 10개 사단 분 이상을 제공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답하는 등 소극적인 태도로 나오기 시작했다. 그는 나머지 50개 사단에 대한 무기 공급은 1954년 상반기에나 완료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⁵⁷⁾ 스탈린은 그 요구가 소련의 생산능력을 넘어서는 것이라고 밝혔기 때문에 마오쩌둥도 이에 수긍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공급기일을 준수하라는 마오쩌둥의 완강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스탈린은 1951년 중에 공급하기로 한 10개 사단 분의 무기 중 6개 사단 분의 제공을 반 년 지연시켰다. 9월 새로이 6억 루블의 추가차관 제공이 합의됨에 따라 그 1951년 제공분인 1억 9천만 루블에 상당하는 군수품 제공의 부담 때문이라는 것이었다.⁵⁸⁾ 결과적으로 스탈린은 제공 기한과 총액만 늘렸을 뿐 당장의 지원규모는 확대하지 않았다. 마오쩌둥의 입장에서 보면 필요한 무기는 받지도 못하고 빚만 늘어나는 셈이었다.

스탈린의 이와 같은 태도 변화에 대해서는 몇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

56) 沈志華, 『마오쩌둥, 스탈린과 조선전쟁』, 선인, 2010, 322쪽.

57) 마오쩌둥이 필리포프에게 보낸 전문, 1951년 6월 21일(Kathryn Weathersby, “New Russian Documents on the Korean War”, *CWIHP Bulletin*, No.6~7, p.62); 필리포프가 마오쩌둥에게 보낸 전문, 1951년 6월 24일(『한국전쟁, 문서와 자료』, 255~256쪽).

58) 마오쩌둥이 필리포프에게 보낸 전문, 1951년 6월 30일(Kathryn Weathersby, “New Russian Documents on the Korean War”, *CWIHP Bulletin*, No.6~7, p.64); 마오쩌둥이 스탈린에게 보낸 전문, 1951년 9월 20일(예프게니 바자노프·나탈리아 바자노바, 『소련의 자료로 본 한국전쟁의 전말』, 172쪽); 필리포프가 마오쩌둥에게 보낸 전문, 1951년 9월 26일(『한국전쟁, 문서와 자료』, 591쪽); 필리포프가 마오쩌둥에게 보낸 전문, 1951년 10월 7일(『한국전쟁, 문서와 자료』, 259쪽).

있다. 첫째, 스탈린의 해명대로 중국과 북한을 지원하기 위한 군수생산이 소련에게 적지 않은 부담이었다. 둘째, 그에게 중국군의 현대화는 그다지 달가운 일이 아니었다. 셋째, 이때 그는 미군 병력을 한반도에 묶어 두면서 지속된 분쟁상태를 유지하고자 했다. 그러므로 자칫 전선을 확대시킬 수 있는 중국에 대한 대규모 지원은 불필요했을 것이다.⁵⁹⁾

이들 중 스탈린이 중국에 대한 지원에 소극적이게 된 실제 이유는 두 번째와 세 번째일 가능성이 높다. 이 시기 소련의 총세출 중 군사비 지출이 차지하는 비율을 보면, 1950년 18.6%, '51년 21.4%, '52년에는 23.9%로 상당한 성장세를 보였다. 소련군의 총병력 또한 1948년 287만 4,000명에서 1955년에는 576만 3,000명으로 크게 증가하였다.⁶⁰⁾ 이와 같은 소련의 군사력 증강은 1949년 창설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에 대한 위기의식의 발로였다. 이 시기 소련의 유럽 중시 전략을 심분 감안하더라도, 동아시아에서는 실제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점에서 군비지출의 우선순위는 명확한 것이었다. 따라서 군비지원의 여력이 없다고 하는 스탈린의 해명은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었다.

스탈린의 해명이 거짓이거나 과장되었을 것이라는 심증의 근거는 앞서 살펴본 60개 사단 분의 무기 제공에 관한 협의 과정에서도 찾을 수 있다. 스탈린과 마오쩌둥이 주고받은 전문을 살펴보면 소련 측 실무자와 스탈린 사이의 묘한 불일치가 발견된다. 6월 21일 무기 제공에 관한 양 측 군 참모장 쉬샹치엔(徐向前)과 슈테멘코의 사전 협상에서 슈테멘코는

59) 이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연구를 보면, 선즈화가 첫 번째, 이종석이 두 번째, 기광서와 웨더스비는 무기 제공 협상은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세 번째 이유에 주목하고 있다. 이종석, 『북한-중국관계 1945~2000』, 중심, 2000, 178~179쪽; 기광서, 『한국전 개입에 나타난 스탈린의 역할 실상』, 『軍史』 63호, 군사편찬연구소, 2007, 105쪽; 캐스린 웨더스비·강규형, 『북-중-소 삼각관계가 6·25전쟁 과정과 전후 북한외교 행태에 미친 영향: 기밀해제문서를 중심으로』, 『정신문화연구』 33권 3호, 한국학중앙연구원, 2010, 135쪽; 沈志華, 『마오쩌둥, 스탈린과 조선전쟁』, 326쪽.

60) 소련의 군사비 지출액은 1950년 794억 루블에서 1952년 1조 138억 루블로 증가하였다. 그리고 소련군의 병력 증가폭은 1952년이 가장 컸던 것으로 보인다. 1955년부터는 소련군이 대규모 개혁에 착수함에 따라 병력감축이 진행되었다. 알렉 노브 저, 김남섭 역, 『소련경제사』, 창작과 비평사, 1998, 359쪽.

1951년 중 10개 사단이 아닌 16개 사단 분의 무기 제공이 가능하다고 언급했다.⁶¹⁾ 그런데 스탈린은 실무자들의 의견임을 내세우며 10개 사단 분의 무기를 제공하는 것도 쉽지 않다는 답변을 보냈다. 두 사람의 견해 중 기술적인 측면만을 고려한 답변은 아마도 슈테펜코 쪽일 것이다. 스탈린이 지원 가능한 규모를 축소해 답변한 것은 어떤 정치적 판단의 결과라고 보는 편이 타당할 것이다.

두 번째와 세 번째 이유는 중국과 마오쩌둥에 대한 스탈린의 뿌리 깊은 불신과 연관된다. 과거 스탈린은 마오쩌둥이 진정한 마르크스주의자가 아니라고 판단하면서, 그가 중국의 ‘티토’가 되지 않을까 염려하였다.⁶²⁾ 비록 마오쩌둥의 한국전쟁 참전 결정이 그와 중국에 대한 스탈린의 인식 변화에 커다란 영향을 주었다고는 하지만, 의구심을 완전히 풀었던 것 같지는 않다. 1952년 후반에 소련은 전문가를 중국에 파견해 무기 생산을 위한 설계도면을 제공했는데 이것은 모두 본국에서 생산이 중단된 무기의 도면이었다. 마찬가지로 전쟁기간 동안 소련이 중국에 제공한 무기와 장비는 대체로 중고품이거나 구형이었다.⁶³⁾ 스탈린은 표면적으로나마 중국군이 현대화해야 할 필요성은 인정했지만 소련과 대등한 수준의 무장을 갖추는 것은 원하지 않았던 것이다. 또 스탈린은 중국군의 역할이 미군을 한반도에 묶어두는 것 이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필요 이상의 무장을 갖추는 필요가 없었던 것이다.

1951년 6월 이후 소련은 북한의 무기지원 요청에도 소극적으로 대응했다. 앞서 언급한 1951년 6월의 무기 제공은 김일성이 신청한 수량에서

61) 이종석은 서울신문에 연재되었던 「모스크바 새증언」 시리즈를 근거로 16개 사단 분의 무기 제공이 가능하다는 정보가 북한 지도부에게서 나온 것으로 쓰고 있는데 이는 잘못이다. 쉬상치엔은 모스크바에서 소련군 참모부 대표, 즉 총참모장인 슈테펜코와 협상한 후 마오쩌둥에게 그 내용을 전달했다. 16개 사단 분 무기 제공에 대한 언급은 슈테펜코에게서 나온 것이다. 다음을 참고하라. 마오쩌둥이 필리포프에게 보낸 전문, 1951년 6월 21일 (Kathryn Weathersby, “New Russian Documents on the Korean War”, *CWIHP Bulletin*, No.6~7, p.62); 이종석, 『북한-중국관계 1945~2000』, 178쪽; 『6·25내막/모스크바 새증언 20』, 『서울신문』, 1995년 6월 27일.

62) 沈志華, 『마오쩌둥, 스탈린과 조선전쟁』, 311쪽.

63) 沈志華, 『마오쩌둥, 스탈린과 조선전쟁』, 328쪽.

삭감된 채로 공급되었다.⁶⁴⁾ 한참이 지난 뒤인 같은 해 10월, 김일성은 스탈린에게 3개 보병사단 분의 무기 제공을 요청했지만 스탈린은 그 책임을 중국 측에 떠넘겨버렸다. 소련이 중국에 제공하기로 한 60개 사단 분의 무기에서 분배받으라는 것이었다. 소련으로부터 무기를 공급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던 김일성은 마오쩌둥에게 구차한 내용의 전문을 보낼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실제 소련으로부터 4개 사단 분의 무기 밖에 수령하지 못한 마오쩌둥에게서는 당장 분배해 주기가 어렵다는 답변이 돌아올 뿐이었다. 결국 김일성은 1951년 10월에 요청한 무기를 다음 해 7월에야 수령할 수 있었다.⁶⁵⁾

이렇듯 스탈린은 휴전회담 기간 내내 공산 측의 우위가 확보되지 않은 휴전에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무기 제공에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는 1951년 초까지 스탈린이 북한과 중국에 대한 대량의 무기 제공을 아끼지 않았던 것과 크게 대비된다. 그는 전선 교착 이전까지는 휴전회담을 고려해 정치적으로 유리한 위치, 즉 서울과 인천의 확보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⁶⁶⁾ 그러나 1951년 마오쩌둥·김일성과 함께 휴전 방침을 확정하게 된 즈음부터는 미군을 계속 소모시키되, 전선을 동요시키지 않는 선에서 지원을 최소화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물론 스탈린의 이러한 방침은 미 공군의 폭격에 시달리며 조기 정전을 희망하던 김일성에게는 매우 고통스러운 것이었다. 휴전회담이 장기화되자 김일성은 스탈린에게 미 공군에 대항할 고사포와 비행기 지원을 희망하면서 “휴전협정 체결, 교전 중지, 제네바협정에 의거한 포로교환 등을

64) 필리포프가 라주바예프에게 보낸 전문, 1951년 5월 29일(『한국전쟁, 문서와 자료』, 253쪽).

65) 라주바예프가 바실리에프스키에게 보낸 전문, 1951년 10월 17일(『한국전쟁, 문서와 자료』, 260쪽); 마트베예프가 라주바예프에게 보낸 전문, 1951년 11월 13일(『한국전쟁, 문서와 자료』, 264쪽); 라주바예프가 자하로프에게 보낸 전문, 1951년 11월 14일(『한국전쟁, 문서와 자료』, 265쪽); 라주바예프가 슈테넨코에게 보낸 전문, 1951년 11월 27일(『한국전쟁, 문서와 자료』, 266쪽); 필리포프가 김일성에게 보낸 전문, 1952년 7월 24일(박종효, 『러시아 연방 외무성 대한정책 자료 I』, 595~596쪽).

66) 楊奎松, 『중국군의 정전협상전략』, 『한국전쟁사의 새로운 연구』 1, 533쪽.

위해 가능한 한 신속히 나서야” 할 것을 요청하였다.⁶⁷⁾ 그러나 스탈린은 이에 대한 답변에서 무기 지원에 관한 사항만 언급할 뿐 조속한 휴전협정 체결에 관한 요청은 무시해버렸다.⁶⁸⁾ 앞서 1951년 10월 김일성이 스탈린에게 3개 사단 분의 무기 제공을 요청했을 때의 에피소드만 생각해 보더라도 전쟁기간 동안 그가 스탈린에게서 느꼈을 굴욕감은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다만 당시로서 절대적이던 스탈린의 권위와 전략 결정에서 거의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었던 김일성의 입지로 인해 김일성은 그와 같은 감정을 드러낼 수 없었을 것이다.

반면 개전초기 북한에 대한 별다른 지원이 없던 중국은 참전을 결정하면서부터 적극적으로 북한을 지원하기 시작했다. 중국의 지원은 인민지원군의 참전과 같은 군사분야를 비롯하여 경제·인력 지원 그리고 후방기지 제공과 같은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이루어졌다. 물론 그 중에서도 북한의 전쟁수행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 군사적 지원이었음은 두 말할 필요가 없다. 중국 인민지원군은 1950년 10월 19일 4개군과 3개 포병사단이 조·중 국경을 넘는 이래, 많을 때는 130만 명의 병력이 한반도에 들어와 인민군과 함께 싸웠다. 전쟁기간을 통틀어 사상자만도 50만 명에 달했다.⁶⁹⁾

중국의 군사적 지원에 대해서는 그동안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지만 군사 외 분야의 지원은 그다지 주목받지 못했다. 하지만 소련의 무기와 중국의 병력 지원만 가지고서는 북한이 어떻게 1950년 10월의 후퇴 이후에도 전쟁을 계속할 수 있었는지 충분히 설명되지 않는다. 일례로 1950년 10월 작전 가능한 부대가 3개 사단에 불과했던 인민군의 전력은 11월 14일 현재 총 8개 군단, 병력수는 25~27만 명에 이르렀다.⁷⁰⁾ 영토 대부분을

67) 김일성이 스탈린에게 보낸 전문, 1952년 7월 16일(박종효, 『러시아연방 외무성 대한정책 자료 I』, 591쪽; 기광서, 『한국전 개입에 나타난 스탈린의 역할 실상』, 『軍史』 63호, 107쪽).

68) 필리포프가 김일성에게 보낸 전문, 1952년 7월 24일(『한국전쟁, 문서와 자료』, 270쪽).

69) 洪學智 저, 홍인표 역, 『중국이 본 한국전쟁』, 고려원, 1992, 47쪽; 楊奎松, 『중국의 한국전 출병 시말』, 『한국전쟁과 중국』, 백산서당, 2001, 321~328쪽.

70) 소련군 총참모부 작전총국의 조사보고, 『1950년 11월 14일 현재 조선인민군 부대들의

상실한 상황에서 인민군이 한 달 남짓한 기간 동안에 어떻게 이처럼 급속한 재건을 이루었는지는 그다지 알려져 있지 않다. 그리고 이 시기 북한의 국가경제와 인민생활이 어떻게 유지되었는지, 병력 유지에 소요되는 무기와 탄약 이외의 군수물자가 어떻게 확보·수송되었는지도 밝혀진 바가 없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들은 대부분 중국의 지원에 힘입었다고 볼 수 있다.

먼저 중국은 만주를 인민군의 재편 및 훈련, 그리고 민간인의 피난을 위한 후방기지로 제공했다. 1950년 10월 북한 지도부는 예비 병력의 확보를 목적으로 6, 7, 8군단 사령부 예하에 9개 보병사단과 특수부대를 창설했다. 이들은 중국과의 합의에 의해 10월 말에서 11월 초 사이에 재편과 훈련을 위해 만주로 이동했다. 6군단은 관톈(寬甸), 7군단은 하이룡(海龍), 8군단은 엔지(延吉), 강건군관학교와 보병학교 등은 통화(通化) 지역으로 각각 배치되었다. 그 숫자는 각종 군사학교를 포함해 약 11만 5천여 명에 달했다.⁷¹⁾ 만주에서 재편과 훈련을 거친 이들은 1951년 2월부터 3월 사이에 안주(6군단)와 곡산(7군단), 함흥(8군단) 지역에 각각 배치되어 작전을 수행하였다.⁷²⁾

1950년 10월의 후퇴 시에는 인민군 외에도 각 기관의 요직자 가족 5만 6천 명 이상, 그리고 일부 지방 정권기관과 학교, 광공업 기업 또한 만주로 소개되었다.⁷³⁾ 예컨대 허가이의 가족들은 하얼빈에서, 김두봉의 딸과 조카딸은 무단장(牡丹江)에서 생활했다고 한다. 어머니가 로동신문사

전력상황에 대하여», 1950년 11월 21일(『한국전쟁, 문서와 자료』, 197쪽).

71)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편, 『소련 군사고문단장 라주바예프의 6·25전쟁 보고서 2』, 59쪽; 슈티코프가 자하로프에게 보낸 전문, 1950년 10월 31일(『한국전쟁, 문서와 자료』, 562~563쪽).

72)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편, 『소련 군사고문단장 라주바예프의 6·25전쟁 보고서 2』, 71~72쪽; 마오쩌둥이 필리포프에게 보낸 전문, 1951년 1월 27일(Kathryn Weathersby, “New Russian Documents on the Korean War”, *CWIHP Bulletin*, No.6~7, p.56).

73) 펠리센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중화인민공화국의 통화·금융관계에 대하여」(木村光彦, 「1950~51年の北朝鮮經濟資料」, 『靑山國際政經論集』 57号, 241頁); 슈티코프가 그로미코에게 보낸 전문, 1950년 11월 17일(『한국전쟁, 문서와 자료』, 205쪽).

에서 일하던 성혜량도 동생과 함께 무단장에 머물며 소개공민 중학에서 공부했다.⁷⁴⁾

만주로 소개된 인민군과 민간인을 합하면 적어도 17만 명 이상이었다. 기관 요직자 가족 5만 6천 명 이외의 민간인 수까지 포함하면 실제 소개된 인원은 훨씬 많았을 것이다. 마오쩌둥은 동북군구 주석 까오강(高岡)에게 만주에 있는 인민군의 식량과 의복, 숙소를 보장해주라고 지시했다.⁷⁵⁾ 만주에 주둔한 인민군의 생활에 소요되는 물자와 경비는 중국 측에서 부담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인민군 외에도 많은 수의 자국 공민이 외국 령에 소개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의 생활에 소요되는 경비는 북한 측이 지출해야만 했다. 또 생산기반이 붕괴됨에 따라 북한 영내에서 소요되는 상품도 중국에서 구입했기 때문에 북한에게는 거액의 동북중국 위안(元)⁷⁶⁾이 필요하게 되었다. 그러나 아직 북한과 중국 사이에는 정식 통화·금융관계가 수립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북한 원과 동북중국 위안 사이에는 자연발생적인 환율만이 존재했다. 1950년 10월에 와서야 북한 재정성에 의해 동북중국 400위안 대 북한 1원의 임시환율이 설정되었다. 1951년 4월 동북중국 위안이 베이징인민은행 위안과 교환된 이후에는 베이징인민은행 42.1위안에 대해 북한 1원의 환율로 교환업무가 이루어졌다.

북한의 중국 영내 지출계획은 1950년 11월 말에 가서야 확정되었다. 이 계획에 의해 1950년 4/4분기~1951년 2/4분기에 북한은 실제로 총 3,561억 위안(84억 원)을 지출했다. 여기에 더해 1951년 3/4분기에는 590억 위안(14억 원)의 추가 지출을 예정하였다. 1950년 4/4분기에서 1951년 3/4분기까지 중국에서 지출한 금액은 도합 약 101억 원이었다.

74) 박명림, 『한국 1950: 전쟁과 평화』, 나남출판, 2002, 542쪽; 성혜량, 『등나무집』, 지식나라, 2000, 219~221쪽.

75) 슈티코프가 그로미코에게 보낸 전문, 1950년 11월 17일(『한국전쟁, 문서와 자료』, 206쪽).

76) 1949년에 중화인민공화국이 성립한 이후, 아직 중국에는 단일통화가 확립되지 않고 있었다. 중국 동북지역에서는 동북중국 위안이 통용되다가 1951년 4월부터 베이징인민은행 위안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이 재정 소요를 충당하기 위해 중국 정부는 3,807억 위안(90억 원)을 제공했다. 이것은 1949년 북한 국가예산의 절반에 상당하는 액수였다.⁷⁷⁾ 중국은 만주에 소개된 인민군의 생활을 책임졌을 뿐만 아니라, 민간인들의 생활에 필요한 대부분의 비용 또한 차관으로 제공하였던 것이다.

이것은 전쟁 중 중국이 북한에 제공한 경제지원의 일부일 뿐이었다. 1951년 3월부터 북한 내각 상업상 장시우는 베이징에서 새로운 차관의 도입에 관한 교섭을 시작했다. 그 결과 중국 정부는 북한 정부에 7,000억 위안(166억 원)의 차관을 제공하기로 결정하였다. 이 결정에 따라 중국은 2/4분기 중에 5,620억 위안(133억 원)을 상품 형태로 공급하고, 나머지 1,380억 위안(33억 원)은 중국 영내에서 상품의 수송비와 북한 정부의 예비비로 할당하였다. 중국 정부가 제공하기로 한 상품의 주요 항목은 제복 30만 벌, 속옷 60만 벌, 면포 2,000만m, 면 1,000톤, 신문 용지 1,000톤, 곡물 4만 톤, 의약품 및 수공업기구 등이었다.⁷⁸⁾ 주로 의복과 식량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 북한 정부가 일시적 후퇴로 피폐해진 인민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해 물자제공을 요청했음을 알 수 있다.

이상과 같이, 1950년 10월의 후퇴 시기부터 51년 6월까지 중국 정부가 북한 정부에 제공한 차관은 도합 1조 807억 위안(257억 원)에 달했다. 이것은 전쟁 전에 계획한 1950년 북한 전체 예산 267억 원과 거의 맞먹는 액수였다.⁷⁹⁾ 1952년 이후 북한에 대한 중국의 원조는 더욱 늘어났다. 1952년 1월, 장시우는 다시 베이징을 방문해 1951년과 같은 규모인 7,000억 위안의 차관 제공을 약속받았다. 또 같은 해 말 중국은 1953년부터 3년간 매년 6천만 달러(2억 4천만 루블)에 상당하는 물품을 무상 공급하기로 결정하였다.⁸⁰⁾ 그렇지만 53년 7월에 휴전협정이 조인됨에

77) 펠리센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중화인민공화국의 통화·금융관계에 대하여」(木村光彦, 『1950~51年の北朝鮮經濟資料』, 『青山國際政經論集』 57号, 240~242頁).

78) 펠리센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중화인민공화국의 통화·금융관계에 대하여」(木村光彦, 『1950~51年の北朝鮮經濟資料』, 『青山國際政經論集』 57号, 242頁).

79) 『조선중앙년감: 1951~52년판』, 79쪽.

80) 마오쩌둥이 펠리포프에게 보낸 전문, 1952년 2월 8일(Kathryn Weathersby, "New Russian Documents on the Korean War", *CWIHP Bulletin*, No.6~7, p.76):

따라 1954년부터는 새로운 협정에 의해 원조가 제공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전쟁기간 동안 중국이 북한에 유·무상으로 제공한 차관의 내역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 2>와 같다.

<표 2> 한국전쟁 시기 중국의 대북한 원조액(상품·현금)

제공 시기	무상 원조	차 관	비 고
1950년 말		3,807억 위안 (5,600만 루블)	북한의 중국 영내 지출
1951년 상반기		7,000억 위안(1억 루블)	1951년 3월 차관협정
1952년		7,000억 위안(1억 루블)	1952년 1월 차관협정
1953년	1조 6,800억 위안 (2억 4,700만 루블)		1952년 11~12월 차관협정(1953년만 제공)
계		3조 4,607억 위안 (5억 300만 루블)	

루블로 환산한 중국의 대북한 원조액은 총 5억 300만 루블로, 1950년 한 해에만 8억 7천만 루블을 제공한 소련의 원조액에는 크게 못미쳤다. 하지만 1950년 대비 1951년 국가예산을 60% 증액하고, 전장에 대한 직접지출만 이해 총예산의 32%를 쏟아 부을 정도로 중국은 한국전쟁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었다.⁸¹⁾ 정부 수립 후 아직 통화 정책이 자리 잡지 못한 상태에서 참전하였기 때문에 심각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정부 예산을 증액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⁸²⁾ 중국은 북한에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원조를 제공했다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중국은 대량의 인력을 투입해 유엔군의 폭격과 점령에 의해 파괴된 북한 지역의 철도를 복구했다. 이는 참전 초기에 이미 30만 명을 상회한 중국인민지원군에 대한 군수보급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조치였다.

마오쩌둥이 필리포프에게 보낸 전문, 1952년 12월 17일(『한국전쟁, 문서와 자료』, 276쪽).

81) 마오쩌둥이 필리포프에게 보낸 전문, 1951년 11월 14일(Kathryn Weathersby, “New Russian Documents on the Korean War”, *CWIHP Bulletin*, No.6~7, p.71).

82) 이 시기 중국 동북지역의 인플레이션은 특히 심각했다. 동북인민폐는 1만 위안에서 50만 위안 권까지 발행되고 있었고, 국수 한 그릇에 1~2만 위안을 지불해야 했다고 한다. 金定基, 『密派』, 大英社, 1967, 69쪽.

철저히 파괴된 북한 지역에서의 현지보급은 거의 기대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거의 모든 물자의 보급은 중국으로부터 북한으로 들어오는 철도수송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1950년 11월 6일부터 철도병단과 민간인 공무대(工務隊)가 북한에 들어와 중국인민지원군이 맡은 구역의 철도수리에 투입되었다.⁸³⁾ 당시 인민지원군 부사령관으로서 보급수송업무를 담당했던 홍쉐즈(洪學智)에 따르면 2차 전역이 시작되는 11월 말경 병참부대에 소속된 중국 병사는 6만 명을 넘어서고 있었다.⁸⁴⁾ 1951년 2월 북한 철도직원의 숫자가 약 2만 2천 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이 시기 중국이 조중연합군의 보급수송에서 얼마나 중요한 비중을 차지했는지를 알 수 있다.⁸⁵⁾ 북한의 철도와 기관차 대부분이 파괴된 상태에서, 기관차, 수리 및 운행인력, 심지어는 수리장비와 일부 북한 측 담당 선로의 인력까지 중국에서 공급되었다.⁸⁶⁾

당연히 철도 복구에 소요되는 경비도 중국 측이 부담했다. 마오쩌둥은 1951년 중국이 북한에 제공한 원조 액수가 1조 5천억 위안에 약간 못미친다고 밝힌 바 있었다. 그가 언급한 원조 내역에는 조선에 제공한 무역차관, 북한의 중국 영내 지출, 북한 영내의 철로를 복구하기 위해 투입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었다.⁸⁷⁾ 따라서 앞서 살펴본 무역차관과 북한의 중국 영내 지출을 위한 금액, 즉 1조 807억 위안을 제하면 이 해 철도 복구를 위해 중국이 투입한 금액은 약 4,000억 위안 정도일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철도 복구에만 중국이 북한에 제공한 지원액의 약 1/3을 투입해야 할 정도로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었던 것이다.

당시 근거리 수송의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한 인력 수송에서도 중국의 역할이 컸다. 인민지원군의 제1차 전역이 시작되는 1950년 10월에 이미

83) 沈志華, 『마오쩌둥, 스탈린과 조선전쟁』, 선인, 400쪽.

84) 洪學智, 『중국이 본 한국전쟁』, 107쪽.

85) 펠리센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광공업, 교통, 금융의 상황에 대하여」(木村光彦, 『1950~51年の北朝鮮經濟資料』, 『靑山國際政經論集』 57号, 235頁).

86) 沈志華, 『마오쩌둥, 스탈린과 조선전쟁』, 405쪽.

87) 마오쩌둥이 펠리포프에게 보낸 전문, 1952년 2월 8일(Kathryn Weathersby, “New Russian Documents on the Korean War”, *CWIHP Bulletin*, No.6~7, p.76).

중국 동북군구는 물자수송을 위해 10만 명의 민간 인력을 동원했다.⁸⁸⁾ 중국 동북 지역 각지의 인민들은 구(區)·촌(村)·둔(屯) 단위로 담가대(擔架隊)와 민공대(民工隊) 등을 조직하여, 소유한 우마와 수레를 가지고 북한 경내에서의 수송 및 도로수리 업무에 참가했다.⁸⁹⁾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후퇴시기를 거치며 철저히 파괴된 북한이 국가경제의 상당부분을 원조에 의지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은 당연했다. 그러나 전쟁을 준비하는 단계에서부터 북한을 지원해오던 소련은 휴전회담이 가시화되면서부터 이후 중국과 북한에 대한 무기 제공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다. 따라서 군수물자 지원 외에도 인민경제의 유지와 철도 복구 등 당장의 지원이 시급했던 북한은 중국으로부터의 원조에 점점 의지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에 중국은 자국 경제가 내전에서 아직 회복하지 못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적지 않은 원조를 제공하여 북한의 국가경제 전반을 지탱하다시피 하였다.

5. 맺음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수립 이후 김일성은 무력에 의한 한반도 통일방안을 가지고 꾸준히 스탈린을 설득해 나갔다. 한반도 문제에 관해 전쟁이라는 해결책을 제시하고 스탈린과 마오쩌둥의 동의까지 이끌어내었다는 점에서 김일성의 주도적 역할은 무시할 수 없는 것이었다. 그러나 1949년 초까지 북한의 무력은 남한에 대한 확고한 우위를 점하고 있지 못하였다. 태동기에 있던 북한의 병기공업은 이미 일정한 생산고를 올리고는 있었지만 전쟁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크게 못미쳤다. 따라서 군비와 병력을 확충하기 위해 북한 정권은 인민 소유의 자금을 동원하기도

88) 洪學智, 『중국이 본 한국전쟁』, 68쪽.

89) 『东北朝鮮人民報』 1950年 11月 22日.

하고, 중국 인민해방군 소속의 조선인 부대들 또한 인민군으로 편입시켰다. 그러나 전쟁 준비를 위한 군비의 확충에는 소련의 지원이 무엇보다 큰 역할을 했다.

전쟁 준비에서 개전에 이르는 기간 동안은 김일성이 나름의 주도권을 행사했지만 미군의 참전이 결정됨과 동시에 그는 감당할 수 없는 전쟁으로 빨려 들어가기 시작했다. 북한의 경제력과 인민군은 애초에 계획했던 약 한 달 이상의 전쟁을 수행할 능력을 갖추고 있지 못했다. 그럼에도 어쩔 수 없는 장기전과 총력전으로 내몰린 북한은 군사지휘체계와 생산체제를 급히 개편할 수밖에 없었다. 산업분야의 전시전환을 위한 각종 조치들이 급조되었지만, 미군의 참전이 초래한 후방과 보급선에 대한 위협 및 보급선의 신장과 같은 문제들에 적절히 대응할 수는 없었다.

특히 미 공군의 전략폭격은 북한의 주요 산업시설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혔다. 참전과 동시에 시작된 대규모 폭격에 대한 대비를 하지 못한 북한의 산업시설은 전쟁 전의 약 25% 수준까지 떨어졌다. 65호공장의 이전이 폭격에 대비한 것이 아니라 전쟁 전부터 준비된 확장 이전이었다는 사실에서도 북한은 폭격에 대한 별다른 준비를 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때 미 공군에 의해 상당한 손실을 입은 북한의 산업기반은 1950년 10월의 후퇴를 거치면서 거의 완전히 붕괴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북한 산업성은 나름의 계획을 세우고 산업의 조직적인 소개를 기도했지만 이는 대체로 성공하지 못했다. 많은 생산시설의 간부와 노동자들은 후퇴 과정에서 심리적 공황에 빠져 직장의 소개에 관심을 두지 않았던 것이다. 65호공장을 비롯해 전략물자를 생산하는 몇몇 공장들만이 인민군 수뇌부의 적극적인 관심에 의해 소개에 성공할 수 있었다. 그렇지만 1950년 10월의 후퇴시기 이후 북한의 산업생산 능력은 전전의 10% 수준까지 떨어져, 전쟁수행은커녕 생존 자체가 의문시되는 상황으로까지 몰렸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의 전쟁수행을 지속시킨 것은 중국과 소련의 군사·경제적 지원이었다. 특히 중국은 인민지원군을 참전시킨 것 외에도

만주를 후방기지로 제공하고, 막대한 인력과 자금을 투입하여 북한의 국가 경제를 지탱했다. 소련은 공군을 참전시킴과 동시에 중국과 북한이 필요로 한 무기의 대부분을 공급함으로써 전쟁의 지속에 적지 않은 역할을 수행했다. 그러나 1951년 봄 조중연합군 4·5차 전역의 실패 이후 승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자, 소련은 지원에 점차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다. 중국군의 현대화를 가능한 지연시키면서, 휴전에도 동의하지 않음으로써 미군을 한반도에서 계속 소모시키려는 의도였다.

이와 같은 스탈린의 전략은 자국의 인민을 희생시키며 전쟁을 수행해야 하는 김일성에게는 매우 고통스러운 것이었다. 소련은 전쟁에 소요되는 무기 대부분을 공급하며 북한을 지원했지만 정작 절멸의 위기에 빠진 북한을 구원한 것은 중국의 참전과 경제적 지원이었다. 김일성 또한 그와 같이 생각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당장의 지원이 아쉬웠던 김일성이 그 같은 속내를 드러낼 수는 없었지만, ‘사회주의 모국’ 소련에 대한 배신감은 마음 깊숙이 자리 잡게 되었을 것이다. 이는 스탈린이 죽고 전쟁이 끝난 이후 전개된 북한의 탈 소련화 노선과 친 중국 정책에 깊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크다.

(원고투고일 : 2013. 7. 1, 심사수정일 : 2013. 8. 9, 게재확정일 : 2013. 8. 22)

주제어 : 한국전쟁, 북한, 전시생산, 군사원조, 차관, 산업소개, 65호공장, 김일성, 스탈린, 마오쩌둥

<ABSTRACT>

North Korea's Wartime Production and Support from China and the Soviet Union during the Korean War

Jo, Soo-ryong

This study has traced the way North Korea met the demands of armaments and what roles China and the Soviet Union had played during the Korean War.

Before the war, North Korea was at the beginning stage of the defense industry. North Korea had basic industry to produce munitions such as the factory no. 65 thanks to the support from the Soviet Union. But it was not at a level to conduct the war independently. Thus, North Korea had to obtain most of its munitions required to fight the war from the Soviet Union.

As North Korea prepared for the war relying on the aid offered by other countries, it could not be ready for a long-term war. The North Korean leadership supposed that the war would last a month and only secured two month's supplies; it started the war with the minimum preparation to conduct war.

However, the North Korean People's Army was thrown in the unexpected long-term war and total war as it was decided that the US armed forces to enter the war right after the war began. Accordingly, some measures were improvised to switchover industries to war industries, yet North Korea failed to properly handle such issues as the US air force's bombing of the supply routes.

The industrial infrastructure of North Korea, significantly damaged by bombardments of the US air force from July to October 1950, started to collapse when they retreated to the North in October. The North Korean

leadership tried to evacuate the industrial facilities, but it mostly failed to do so. After the retreat in October in 1950, North Korea's industrial productivity dropped to 10% of its original level before the war.

Under the circumstances when the existence of North Korea was at the stake, not to mention the conducting of the war, the war could be continued as China and the Soviet Union supported North Korea with the military and economic assistance. The Soviet Union played an important role in continuing the war by supplying most of the weapons needed by China and North Korea. However, it became reluctant in supplying weapons from June 1951, which distressed Kim Il-sung who hoped to end the war as early as possible. Unlike the Soviet Union, China offered Manchuria to North Korea as rear base, and sustained the economy of North Korea with tremendous financial and material resources apart from supplying troops.

Although China was far from the Soviet Union when it comes to an absolute amount of support, the contrasting attitudes of the two countries during the course of the support deeply impressed Kim Il-sung: it somewhat affected the development of relationships between North Korea and the Soviet Union as well as North Korea and China.

Key Words : the Korean War, North Korea, the Soviet Union, China, wartime production, military aid, loans, industrial disperser, the factory no.65, Kim Il-sung, Stalin